

노르웨이 여행기-

꿈에 그리던 피오르드

Norway Tour



글 | 李鶴榮
(Lee, Hak Young)

건축사공기술사
우림엔지니어링/감리본부

e-mail:hykor789@hanmail.net

7월 22일 14시 20분

우리 일행은 덴마크의 헬싱고르에 도착하여 해협을 건너야 노르웨이로 진입한다. 15시에 버스까지 페리에 승선하여 30분 후 스웨덴 헬싱보리에 도착하였다.

이런 일정을 “아침은 덴마크, 점심은 스웨덴, 저녁은 노르웨이”란 말이 있어 지참한 지도를 보니 충분히 이해가 되는 거리였다. 한국면적의 약 4배에 475만명의 인구.

해협을 지나며, 북구는 이질 문화가 아닌 유사한 자연조건에 같은 문화의 연속임을 확인하였고, 스웨덴 헬싱보리 연안을 벗어나니 우리가 보던 해당화, 떡갈나무, 마로니에나무, 산딸기 등이 군락을 이루며, 필자의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다.

에테보리 시골도시를 지나며, 초지는 계속되고, 풍력발전, 젓소 방목이 눈에 들어왔다.

푸른 하늘에 그림 같은 뭉게구름은 흔하게 볼 수 있어, 필자의 눈을 시원하게 만족시켰다. 서울의 하늘과 비교가 되지 않고 어디든 한 폭의 풍경은 엽서감이다.

퀄리티 호텔에 여장을 푼 시간이 21시 30분인데, 해는 질 생각을 않고, 백야를 확인시킨다.

조식이후 호텔을 나선 시간이 7월 23일 08시 30분. 오슬로에 도착하여 김혜자 가이드를 소개 받는데, 현지에 25년 생활하고 있는 중년부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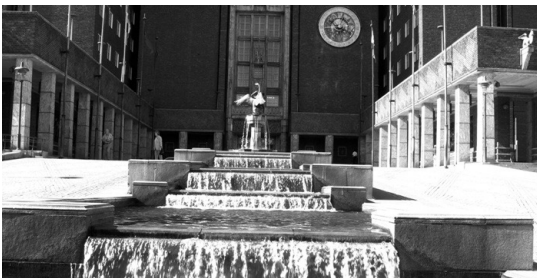
스칸디나비아 반도 서쪽 끝자락에 길게 뻗쳐있는 나라, "노르웨이(Norway)"하면 무엇을 연상하시는지요? 그녀의 첫 질문이다. 백야? 피오르드? 노벨 평화상? 북해유전? 눈 덮인 산하? 사회복지 제도가 잘 갖추어진 나라? 동계올림픽에서 크로스 컨트리 스키에 특히 강한 나라? 음악가 그리그? 아

니면 프리섹스의 천국? 모두가 맞는 말이다.

사회복지가 최고로 잘 되어있는 복지국가이며, 핑크색경제 지표는 2008년 4월 기준 국민소득 96,000불의 세계 두 번째 부국-세계 5대 산유국이며, 중질유의 고급기름이 생산된다니, 당분간 이 나라의 국민 소득은 타의 추종을 불허할 것임에 틀림 없었다.

국토의 80%가 산악이고 토질이 암층이라 농사보다는 어업이 주산업이고, 배가 발달된 원인이다. 이 나라는 요트의 크기가 부의 상징- 그래도 국민들은 검소하고 소박해 보인다.

인구 117만의 오슬로 수도는 하나님의 초원이란 별명을 갖고, 매년 12월 10일 노벨평화상 시상 장소로 사용된다. 벽체들이 대리석으로 마감되어 한눈으로 건물의 단가가 높은 건물임을 알 수 있었다.



〈사진 1〉-시청사 입구

오늘은 17년 만에 최고로 좋은 날씨라니, 날씨에 대한 관심이 높은 민족-그러니 태양빛을 향한다는 해바라기 죽이 많이 보인다.

노르웨이에 관해 설명을 들으며 바이킹박물관이 눈앞에 나타난다.

바이킹 박물관

AD 800년에서 1150년까지 350년동안 가난에 시

달리던 노르웨이의 선조 바이킹족들은 배를 타고 타민족을 약탈하며 살아남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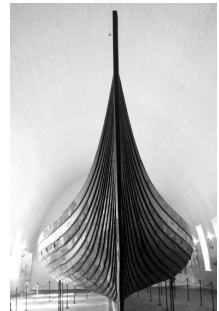
바이킹족들은 수천대의 배를 소유하였고 여왕 배는 미국과 캐나다까지 원항하였으며 크기가 일반 배보다 훨씬 크고, 유람선은 곡선위주이고, 원거리 항해용은 배 폭이 넓다.

선적해야할 물량이 많은 것 때문에 배의 모양이 대조적이었다. 그러나 앞뒤가 모양이 같다. 약탈 후 도망가기 쉽도록 설계하였다고 한다.

여기 전시된 배는 AD800~850에 사용된 떡갈나무로 건조된 배인데, 1905년 진흙 속에서 발견될 당시 여왕시신과 10대의 하인들이 발견 되었단다. 스칸디나비아 반도 3국 즉 덴마크, 노르웨이, 스웨덴의 공통점은 바이킹족의 후예들이다.

노르웨이 사람들은 그들이 바이킹족의 후예라는 자긍심을 갖는데, 그들 선조가 약탈자인 야만인이라는 생각보다는 모험심과 개척정신 그리고 정복자라는 자긍심을 갖고 있단다.

다시 발길을 돌려 1시간 동안 시내를 거쳐 오전 11시 비젤란 조각공원에 도착했다.



〈사진 2〉-바이킹 선박

비젤란 조각공원

본 조각공원은 약 10만평대지위에 조성된 노르웨이의 조각가 구스타브 비젤란 (Vigeland Adolf Gustav, 1869~1943)의 전 생애를 바친 대작이다.

1920년 비젤란이 공원설계 현상공모에 당선된 후 공원이 완공된 것은 30년 지난 1950년이니 완공 7년 전 세상을 떠났다. 대문인 지옥문을 지나면, 천

국의 문이 전개되었다. 특히 인상적인 것은 고뇌와 희망을 상징하는 분수대였다.

인간의 한 생애를 360° 돌아가며 조각된 청동상은 하나의 생에 대한 확고한 메시지를 던져주었다.

중앙의 모노리스 석탑은 비젤란에 의해 석고로 만든 것을 3명의 석공이 14년간에 걸쳐 만든 것으



〈사진 3〉-인간의 종말

로 1943년 비젤란이 죽기 직전에 완성-높이 18미터, 240톤 원석에 벌거벗은 남녀노소 121명의 조각상을 배치하여 인간의 일생을 상징적으로 표현하고, 제일 위엔 어린이가 조각되어 있었고, 후면의 분수는 우주가 조각되어있었다.

약 1시간 동안 공원을 둘러보고 점심은 한국인이 경영하는 코리아 레스토랑에서 맛있는 한식을 즐겼다. 다음일정은 여기 오슬로를 출발하여 동계 올림픽이 열렸던 릴리함메르를 거쳐 오타(Otta)지역에서 오늘 1박 예정이다. 지도를 보니 이제부터 장거리다.

노르웨이는 5월에서 8월까지만 관광이 가능한데, 9월부터는 일찍 해가 지므로 흑주(黑晝)현상으로 낮에 이동시간이 짧고 9월부터 강설이 시작된다고 한다. 여름과 겨울만 있으니 두 계절만 있는 나라이다.

대낮에도 차량들은 미등을 켜고 다닌다. 시동을

켜면 자연히 주행 등이 켜지게 설계되어 있어 사고율이 30%나 줄었다고 한다. 하지(夏至) 전후로 67도 북회귀선 지역은 3주 동안 백야현상이 계속되어 24시간 낮이란다.

오타는 현지어로 8이란 숫자인데, 1349년 500명의 마을 사람들이 흑사병으로 8명만 살아남아 오타(8)란 이름으로 유래되었고, 현재는 인구 5천명- 감회가 깊은 소도시에 오늘 일박은 역사성 있는 곳이다. 오타 룬데시룻테 호텔에 18시 15분에 도착하였다.



〈사진 4〉-만년설의 고봉

멀리 만년설이 보이는 산장에서 체크인하고, 내일은 4, 5, 6-4시 기상, 5시 식사, 6시 출발하여 11시 배를 타고 예이랑에르 피오르드에 오른다.

예이랑에르 피오르드

이번 여행의 하이라이트 중의 하나인 예이랑에르 피오르드를 보기위해 아침 6시 정각 호텔을 출발하여 이름만 듣던 요정의 길로 향했다. 산중턱엔 모두 별장이다.

80%가 산악지대인 이 나라의 산림은 주로 자작나무, 소나무, 전나무가 주류를 이루며, 목세공은 건축 세공술로 발전되어 필자가 대학시절 책에서

본바있다.

험한 산세의 계곡도로의 요철을 2시간 30분 걸쳐 빠져 나와 요정의 길에 들어섰다.

필자는 저 산중턱과 정상에 여러 개의 U턴 도로를 보고, 2층의 이 대형 버스가 과연 회전할 수 있을지 그것이 심히 걱정되었다. 태연한 몸가짐으로 안전벨트만 점검하고 때로는 눈을 감아야할 정도의 험한 길-놀이터의 정글마우스를 타는 기분같이 울렁이니, 요상한 길임을 직감하는 순간들이다. 해발 1,000m를 넘는 꼬불꼬불한 산길을 스웨덴출신 레이프 기사는 멋지게 운전했고, 요정의 길 정상에



〈사진 5〉요정의 목각

도착한 운전기사에게 당신은 역시 베스트 드라이버라고 엄지손가락을 치켜세우니 기사는 입이 찢어지듯 웃는다. 나중에 알았지만, 요정은 코가 크고, 머리가 흐트러지고, 손가락이 4개 인 것이 특색이란다.

이 더운 날씨에 가까운 곳에도 빙하가 손에 잡힐 듯 눈에 들어온다. 빙하가 1,700개 이상의 나라답다. 예이랑에르 피오르드를 타러 가는 길은 멀고도 험했다.

9시 정각에 산 정상에 도착 하니, 출발 후 3시간 걸렸다. 노르웨이의 산은 2,469m가 가장 높은 산이나 2,000가 넘는 산이 300개나 된다고 하니, 요정의 길이 있는 이 산은 그래도 약과이다. 이 더위에도 도로 옆에 쌓인 눈이 푹푹 녹아내리고 있으니, 도대체 얼마나 많은 눈이 내렸기에 아직까지 녹아내리고 있는지...

요정의 길을 뒤로하고, 다시 목적지를 향하지만,

내리막길도 꼭예코스- 우리나라 남해안 다도해는 리아시스식 해안인데, 노르웨이, 칠레, 뉴질랜드는 빙하가 침식되어 생긴 피오르드식이다. 빙하기를 거치면서 녹아내린 빙하에 의해 산이 깎여 형성된 협만, 협곡인데, 4대 피오르드(Fjord)는 예이랑에르 피오르드, 송네피오르드, 하랑에르 피오르드, 튀세피오르드란다.

역시 내리막길은 일순간에 링이란 마을에 도착하여 싱싱한 체리를 마음껏 먹고 즐겼다. 필자는 여행 중 호텔 화장실 물을 그대로 먹어본 적이 별로 없다.

그러나 며칠간 호텔 어디서나 먹은 물들은 일류 식수-여기 물은 어디서 먹어도 이상이 없었다.

링에서 페리에 버스와 함께 승선하여 예이랑에르 피오르드로 향한 시간이 10시 40분. 예이랑에르 지명은 화살의 축이란 뜻을 갖는 유래가 있는데, 멀리서 보니 마을 지형이 화살 축같이 생겼다. 현지에 도착하여 11시 30분, 대형 페리 유람선에 올랐다.

아무리 보아도 호수 같은데, 안내는 바닷물이란다. 저렇게 잔잔한 이유는 바다가 내륙 깊숙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파도가 없다고 한다.

빙하수가 합류되어 묘한 물빛이 청동 부조 색을 발하며 시선을 유혹한다. 피오르드중에 최대로 수심이 깊은 곳은 526m라니, 우리나라 아파트로 180층 높다. 여기 예랑에르가 여성미라면, 송내는 거친 남성미란다.

하선 후 버스로 20분 육로를 달려, 레르달 이란 해안마을을 지났다. 이 마을엔 감자밭이 유난히 많이 보였다. 1492년 콜럼버스가 감자와 담배를 전파한 이후 계속 그런 작물이 많다.

연이어 라르달 터널을 지난다. 입구 간판에 연장 24.5km표식. 1991년 착공하여 2000년 10월 완공되었다니, 9년 공기에 3조원 투자하여, 60리가 넘는 터널로서 세계최장이다. 32개의 환풍기가 설치되어 내부를 80% 정화하고, 7km마다 조명시설이 바뀐다. 첫 번 것은 형광색, 2번의 것은 초록색, 3번의 것은 주황색등이 나타났다. 운전의 지루함을 해소한다고 한다.

터널은 일본이 2위, 스위스가 세계 3위의 긴 터널을 갖고 있다.



〈사진 6〉-피오르드의 해수면

이 나라는 터널기술이 세계적이라, 이북의 김일성도 이 나라 터널기술을 견학하고 실무에 적용했다고 한다. 20분 지하를 벗어나, 곧 송내 피오르드의 구드방엔 이란 조그만 해안마을에 도착하니 18시30분이다.

여기서 1박하기 위하여, 단층 토담집 같은 분위기 있는 방엔 표범 가죽이 멋지게 침대를 덮고 있었다.

내일은 베르겐으로 향하기 위하여 6, 7, 8-백야가 있는 이곳 저녁 7시에 식사하고 주변을 둘러보았다. 시간이 더 있으면 더 멋진 낭만을 즐길 요소가 여기저기 많았다.

베르겐을 향하여

아침 8시 오늘도 쾌청. 구드방엔 젤시텔 호텔을 체크아웃하고, 베르겐을 가기 위해 버스에 올랐다. 시볼레 터널을 지나, 30분후 보스(Voss)란 소도시를 통과한다. 이 도시는 2차대전 중 대부분 파괴되었으나, 보스 교회만 전란의 피해 없이 그대로 있다. 시가지 주변엔 넝쿨장미, 산딸기가 즐비하고 전원적 분위기가 스위스 산동네 같았다.



〈사진 7〉-구드방엔 산장

녹색의 전원을 지나며, 작곡가 그레그의 슬베이지의 노래가 흘러나온다. 그래도 앞자리엔 벌써 코고는 소리-소위 잠광(잠을 자는 관광)이 시작된다. 자장가 같은 음악 때문일까.

베르겐은 피오르드의 관문 이자, 이 나라의 두 번째 도시이고, 옛 수도이다. 중세엔 한자동맹 도시로 번성했고, 작곡가 그리그의 생가가 있다. 숙소를 출발하여 약 2시간 지나니 그리그의 생가에 도착했다. 1943년생이며, 152cm의 단신에 세계적인 작곡가로 명성. 각국의 관광객이 줄을 이었다.

그의 작품 활동 공간은 호수가 보이는 조그만 적색 목조건물에 피아노와 작곡지만 조그만 책상에 놓여 있었다. 사랑하는 아내 리라와 합장한 묘지를 둘러보고 주변에서 1시간 체류하며, 그의 족적을 박물관에서 볼 수 있었다.

다시 어시장으로 빠져 나오니 훤히 트인 바다와 고풍스런 상가들이 눈에 번쩍 들어왔다. 여기서 약 50분 머물 예정으로 하차했다. 베르겐은 도시 자체가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된 아름다운 도시이다.

1979년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된 베르겐(Bryggen)¹⁾의 항구에 목조 건물 수십 채가 바다를 향해 일렬로 늘어선 중세풍의 건물 모습들. 목조 건물이라 여러 번 화재에도 불구하고 복원된 건물은 옛 것과 동일하다고 한다.

여기 어 시장은 500년 역사, 목조 상가들은 1703년에 준공되었다니, 305년의 역사-모두 일가견의 내력을 가진 역사이자 품물들이다.

인구 23만의 도시에 70%가 시내에 밀집하여 있고, 연간 강수량이 2,000mm에 우울한 날씨가 계속되어 지붕은 붉은색을 권장 한다. 연간 299일이 비가 오는 곳이니, 상가의 한인 점원이 이렇게 맑은 날 뵈게 되어 반갑다고 인사한다.

베르겐의 점심은 고풍스런 목조식당에서 가졌는데, 우리 일행이 해안에 들어오는 연어를 통째로 회를 만들어왔기에 연어파티가 열렸다. 감사의 박수와 함께 싱싱한 회 한 쟁반을 후딱 비웠다.

노르웨이 제2의 도시 베르겐을 뒤로하고, 스웨덴으로 향한 먼 길을 육로로 가야하는 장거리 강행군이란다. 오늘은 일단 노르웨이 게일로(Geilo)에서 1박했다.

노르웨이의 마지막 추억

게일로의 발도라 호텔에서 6, 7, 8을 약속하고 여장을 푼 시간이 18시. 백야라...

이 시간에 잠이 올 턱이 없다. 우리는 주변을 산책하며, 탈옥한 죄수인양 자유 시간에 사방 흩어지

며 자연을 만끽한다. 필자는 아프리카의 소말리아에서 관광 온 가족의 어린이들이 너무 인상적이라, 몇 장의 기념사진을 촬영해 주었다.



〈사진 8〉-베르겐의 해안

산장호텔로 설계된 분위기 있는 숙소에서 하루를 즐기며, 그동안의 여독도 여기서 모두 풀었다. 결국 노르웨이의 4박은 오늘로서 마지막 백야를 즐긴다.

이 나라는 고소득자의 세금이 40~50% 정도로 납부하는 선고후락(先苦後樂)의 나라-그래도 1~2월엔 자살률이 높단다. 알아보니 연말 실컷 즐기며 쇼핑한 카드대금에 시달려 자살하고, 크리스마스 축제에서 다투어 자살하고, 긴 겨울 폭설 속에 외로워서 자살하고...

썩쓸한 생각이 든다. 그래서 한국은 지옥같은 천국이고, 노르웨이는 천국같은 지옥이란다. 듣고 보니 공감되는 순간이다. 26일 아침시간.

이런저런 이야기를 듣는 가운데, 출발 후 3시간 30분 걸려 오슬로에 다시 도착.

안내는 이 좋은 계절에 또 다시 다른 방문객을 맞으려고 정신없이 작별인사를 나누고 바쁜 걸음으로 총총히 사라졌다.

파노라마 같은 추억을 간직하며, 오슬로는 자꾸 멀어져 갔다.

〈원고접수일 2010년 8월 13일〉

1) 베르겐은 중세 한자동맹(Hanseatic League) 상인들이 거주하면서 무역활동을 하던 북해지역 사무소, 창고, 점원들의 숙소 등 다용도 공간.